



불교신문



1960년 1월 1일 창간 주1회 발행 제3689호 대표전화 (02)730-4488

ibulgyo.com

(2021년 / 단기 4354년 음력 9월28일) 불기 2565년 11월 2일 화요일

“아시아, 세계평화 위해 매우 중요” 원행스님, ACRP 공동회장 선출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2026년 총회까지 5년 임기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사진·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이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공동회장에 선출됐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10월 22일 “KCRP 대표회장 원행스님이 제9차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총회에서 공동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제9차 ACRP 총회는 ‘행동하는 아시아종교인공동체’를 주제로 10월19일부터 10월22일 일본 동경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회의로 진행됐다. 공동회장에 선출된 원행스님은 차기 ACRP 총회가 열리는 2026년까지 5년간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를 이끌게 됐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공동회장 수락 연설에서 “아시아는 세계 주요 종교가



탄생한 종교 성지이며 수많은 종교가 공존하는 지역이기에 아시아 지역의 종교 간 화합이 세계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의 공동회장으로서 남북 종교간 교류를 증진시켜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다종교 국가인 한국의 종교간 협력을 강화하여 아시아 종교간 협력 평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조계종 총무원은 10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10·27법난 41주년 추념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추념법회에서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승려문에 공모전 시 부문 대상 수상자 해해스님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모습.

역사적 상처 치유... 10·27법난 41주년 추념법회

법난기념관 건립·진실 규명
명예회복 등 과제 이행 위해
더욱 더 함께 정진할 것 약속

승려문에·추념곡 시상식도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10·27법난의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종교 평화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추념의 장이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원행스님)은 10월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10·27법난 41주년 추념법회’를 봉행했다. 10·27법난 추념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법난 피해자모임 대표 명예원로의원 명선스님, 법난 피해자 원로의원 원행스님, 교육원장 진우스님, 포교원장 범해스님을 비롯해 종단 부·실장 스님 등이 참석했다.

추념법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봉행됐으며, 조계종 홍보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방송됐다. 법회 참가자들은 한국불교 오

욕의 역사인 10·27법난 피해자들을 추념하며 법난의 아픈 상처를 승화시켜 화해와 상생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1980년 10월27일 신군부는 불교계에 치욕을 안긴 불교 탄압을 자행했다. 이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역사적인 상처를 남겼다”며 “불은 사 부지에 10·27법난 기념관 착공, 법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진실규명과 국가폭력 재발 방지 등 우리 종단 앞에 놓여 있는 과제들을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다. 종단은 이 대작발

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0·27법난명예회복심의위원장 금곡스님은 법난 진실 규명을 위해 정진할 것을 약속했으며, 법난 피해자모임 대표 명선스님은 피해자 스님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회에 이어 10·27법난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실시한 전국 승려문에 공모전과 추념곡 공모전 시상식도 열렸다.

문예공모전에서는 해해스님의 ‘가사를 정대하며’와 범념스님의 ‘진리의 등불

은 꺼지지 않는다’가 시와 산문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서현스님과 충명스님이 시 부문 우수상을, 지용스님과 영우스님이 산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추념곡 공모전에서는 임대열 씨의 ‘연꽃이 다시 필 때까지’와 정혁진 씨의 ‘누명의 굴레 벗고’가 각각 작사와 작곡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류복희·강주현 씨가 작사 부문 우수상을, 최주원·강주현 씨가 작곡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불교중흥 발원 특별선서화전 2일 개막

11월8일까지 동국대 본관...‘사부대중 한마음’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하는 특별선서화전이 11월2일 오후3시 서울 동국대 팔정도 광장에서 개막한다. ‘새로운 인연’을 주제로 한 선서화전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8일까지 동국대 본관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지승스님(상월선원 화주)이 기증한 작품들을 주축으로 총 300여점의 선서화를 선보이는 이번 특별전은 판매수익금 전액을 코로나19 신음하는 교계 여러 단체로 회향될 예정이어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같은 취지에 공감하여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과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전시는 ‘불교중흥을 위한 특별선서화전’ 추진위가 주최하고 동국대를 중심으로 상월결사,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아름다운동행 등이 주관하고 있으며 본지와 함께 범보신문, 현대불교, BBS불교방송, BTN불교TV 등 교계 언론도 전시회의 원만한 회향을 위해

심사위원 힘을 모은다.

개막식은 개회선언,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특별전 경과보고, 사후서원, 테이프커팅 순으로 진행되며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참석하여 개막을 축하하는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특별전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대종사의 ‘불광보조(佛光普照)’와 만해 한용운 스님의 선시, 송담스님의 달마도, 석정스님의 선시, 도촌 신영복 선생의 선화 등 근·현대 원로대덕 스님들과 선서화의 대가들의 숨결이 깃든 다채로운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7일간의 전시 기간에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아름다운동행 (02)737-9579
하정은 기자 tomato77@ibulgyo.com

社告

2022 불교신문 신춘문에 공모

불교문학 신예작가 등용문인 ‘2022 불교신문 신춘문예’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한국불교 문단에서 수많은 문인을 배출해 온 역사와 전통의 불교신문 신춘문예에 불교문학에 관심있는 신진작가들의 응모를 기대합니다.

응모마감 2021년 11월 1일(월) ~ 12월 3일(금)

응모대상 불교문학에 관심이 깊은 신진작가

공모분야

-단편소설 부문(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또는 A4용지(아래 한글, 11포인트) 10매 내외)
-문학평론 부문(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또는 A4용지(아래 한글, 11포인트) 8매 내외)
-동화 부문(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또는 A4용지(아래 한글, 11포인트) 4매 내외)
-시·시조 부문(5편 이내)

상금

-단편소설 500만원 -평론 300만원 -동화 300만원 -시·시조 300만원
*당선작은 각 분야에서 1편을 선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선작 상금의 반액을 지급하는 가작 선정
*관련법에 의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임

당선작발표 2022년 1월 1일 신년특집호 (당선자에 한해 개별통보)

접수처 (03144)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7(견지동) 전법회관 2층 불교신문사 신춘문예담당

유의사항

1. 결봉투에 신춘문예 현상공모작 응모분야를 명기해주시요.
2. 기 발표 원고 및 표절, 타 신문이나 잡지에 중복 응모된 작품임이 밝혀지면 당선이 취소됩니다.
3. 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본 작품에 한하여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수상작에 대한 판권은 본사가 소유합니다.
5. 맨 첫장에 작품과 별도로 응모분야, 인적사항(본명,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을 기입해 주십시오.(작품내용 안에 이름 등 인적사항 명기하면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6. 우편접수와 내방접수만 가능합니다.
단, 해외에서 응모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인터넷 접수를 받습니다. (해외에서 접수시 한국내 연락 가능한 연락처 필히 기재요망) (bud22@ibulgyo.com)

문의 (02)730-4489(신춘문예 담당)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

삼보사찰 방장스님의
감로법문에 큰 힘을 얻었으며,
교구본사 주지스님의 응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삼보사찰 순례, 부처님 성지 참배하며 가르침 새기는 수승한 공부”
불지종찰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대종사 법어

“걸음걸음에 정성 다하고 깨어있다면 천리순례는 최고 수행”
범보종찰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대종사 법어

“삼보사찰 천리순례, 힘든 시기 국민 불자들에게 희망 용기 줄 것”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대종사 법어

